

건축서비스산업은 진흥되어야 한다!

Architectural Service Business must be promoted!

조충기 | 건축문화신문 편집인 겸 편집국장

스페인의 빌바오(Bibao)는 전통적인 조선업으로 부흥했던 도시였다. 조선사업의 쇠락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1980년대 이후 바스크정부는 구 조선소와 중공업지역에 도시경제의 부활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구겐하임재단의 유럽박물관을 유치하여 1997년에 개관한 프랑크게리의 구겐하임 빌바오는 건립 1년도 안되어 1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연간 1억6천만 달러의 관광수입을 가져다주었다. 빌바오라는 인구 40만의 작은 도시가 파리, 뉴욕 못지않은 브랜드파워를 갖게 되었으며, 문화도시로서의 세계적인 명성도 얻게 되었다. 하나의 건축물이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으며, 건축물이 지역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도시재건계획을 수립한 빌바오시는 해마다 세계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도시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건축서비스산업의 생산물인 건축물, 도시 등 공간 창조물은 생산과정에서부터 그 자체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적 가치, 더불어 고용창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특징은 무엇일까?

건축서비스 산업은 건물 또는 구축물이라는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활동이다. 건축과 건설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규격, 용량 등이 표준화 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건축설계업은 건축·건설업의 이러한 특성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문 생산형 서비스 산업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이 노동집약적으로 서비스를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업종으로 저작권 등의 무형자산을 창출한다. 건축서비스는 현장과 건축사무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타 제품의 생산요소와 달리 토지와 공장, 설비 자본의 비중이 낮고 노동과 인적자본에 투자되어 있는 기술, 문화, 예술적 감각 등 비가시적 지적 요소의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이다. 계절적 측면에서도 건설업의 노동시장이나 타 원자재의 시장과는 달리 계절적 영향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최종재화인 건축물은 장기소비형 자본재로서 감가상각의 특징과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감가상각 속도의 저하와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규모는 건축서비스의 완성도에 크게 의존적하는 성격을 지닌다. 건축물은 완공 전의 생산 활동에 의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완공 후에는 자본재로서 임대 가치를 지니게 되며, 역사성이나 시대 및 지역에 따른 문화적 부가가치를 지닌다. 또한 건축서비스의 최종생산물인 건축물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도시 공간은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고, 도시의 상·하수도, 전력, 정보망 등의 기반시설과 함께 생활과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건설경기가 국가의 주택건설 계획, 신도시 계획 등에 민감한 성격을 지니며, 타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증폭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이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은 정부가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고용 및 부가창출정책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진흥으로서의 법적 기반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

※ 이 글은 김지엽, 심우일의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1" 내용을 참조·인용하였다.